

# 민주당·친환경농업계, 유기농업 2배 확대 위해 '맞손'

### 농어민委, 地選 앞두고 10대 정책 합의 문금주 "친환경 농업기반 확고히 할 것"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의 해법인 친환경 유기농업의 비중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내 대표 친환경 농업 단체들이 정책적 동맹을 맺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연대와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이행을 선언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인 유기농업 확대 흐름에 발맞춰 국내 친환경 농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6·3 지방선거에서 농정 혁신 과제를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식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생산 기반 강화부터 소비 확대,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총 10대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설정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생산 부문에서는 지자체별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지급을 도비 지원 방식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유기농자재 지원 확대와 친환경 청년농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광역 단위 거점 물류센터 확충과 더불어 어린이집, 공공병원, 요양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차액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치유 먹거리' 체계를 구

축해 고령자나 환자에게 지역 친환경 농식품을 활용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모델도 구제화했다.

구조적 혁신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농식품부 내 '환경농업정책국' 신설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금주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은 더 이상 시혜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붕괴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먹거리 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은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농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약을 통해 친환경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대전환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호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정책 실무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공약과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진수기자



국민의힘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 국민의힘 광주시당·전남도당은 13일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전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전남·광주 후보자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국힘 이정현 "농지규제 완화 지역별 차등 적용"

### "투기 막되 현실적 거래 가능해야"

### 청년농·소멸위험지역 등 규제 완화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3일 "농지거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며 "청년농 진입 확대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가 현

실과 맞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남에게 맡겨 농사짓는데 서류상으로는 직접 경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편법과 위선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실경작 개념의 현실화, 청년농 특별구역 조성, 임대형 농지은행 확대, 장기 저리 금융 지원, 스마트팜 특례 강화, 방치농지·휴경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수도권 개발 예정지는 강하게

관리하고 소멸위험 농촌지역은 거래와 투자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지역별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거래 자체를 막기보다 실제 영농 여부와 방치 여부, 단기 차익 거래, 불법 전용 등을 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은 식량과 에너지, 탄소중립, 바이오, AI 산업과 연결되는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지금 농촌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관리와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 서삼석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대표발의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빈번한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천500만명에 이르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들의 임상교육

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가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전염병방역 등 공공 분야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학과를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진수기자

## 국회의원 특교세 확보 소식 이어져

### 이계호·문금주 각 60억...안도걸 43억 결실

### 신정훈 38억...주철현·조계원·김문수 19억씩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생활밀착형 현안사업 해결 및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2026년 상반기 행정부 특별교부세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담양군 15억원, 함평

군 15억원, 영광군 15억원, 장성군 15억원으로, 지역구 4개 군에 균등하게 배분돼 지역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총 11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행정부 특교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4개 지역 총 11개 사업에 6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문 의원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부를 상대로 사업 타당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거둔 결실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각각 15억원씩 배정됐으며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노후 공공시설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지원하는 행정부 특교세 43억원(동구 30억원, 남구 13억원)을 확보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나주·화순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38억원을 확보했다. 재난·안전 대응은 물론, 도로·생활 인프라 개선, 관광 기반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구성된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철현 의원(여수갑), 조계원 의원(여수을),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각각 19억원의 행정부 특교세를 확보했다. /김진수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